

2019년 8월 21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금융주 및 대형기술주가 하락 주도 이탈리아 정치 불확실성 부각되며 미 국채금리 하락

미 증시 변화 요인: ①이탈리아 총리 사임 ②기술주 독점 금지법 ③세금 감면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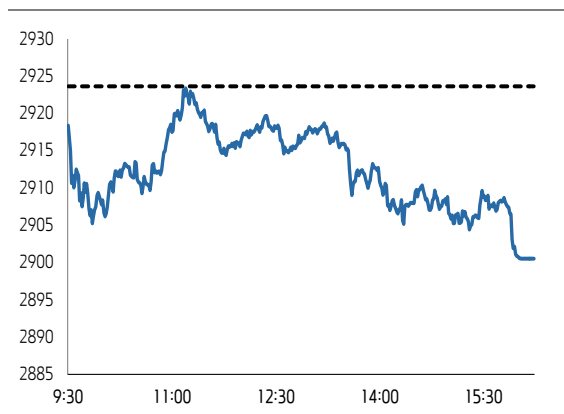
미 증시는 이탈리아 정치 불확실성 여파로 국채금리가 하락하자 매물 출회. 장중 미 정부의 세제 개편을 통한 부양정책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잠시 반등을 보이기도 했음. 그러나 오후 들어 대형 기술주가 독점 금지법 관련 이슈가 부각되자 재차 하락폭을 확대. 더불어 트럼프가 유럽 자동차 관세 문제는 매우 어렵다고 주장한 이후 낙폭이 좀더 확대(다우 -0.66%, 나스닥 -0.68%, S&P500 -0.79%, 러셀 2000 -0.72%)

미 증시 장중 반등 요인은 전일 커들로 위원장이 증산층에 대한 10% 세금 감면 검토 발언 이후 감세안과 관련된 보도에 힘입은 것으로 추정. 그러나 백악관 대변인이 "현 시점에서 감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라고 언급 했으며, 장 후반 트럼프도 "백악관은 다양한 감세안을 검토 중이나 임박한 건 아니다" 라고 주장해 영향은 크지 않음. 실제 시장에서는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감세안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한편, 하락 요인은 두 가지로 추정. 먼저 이탈리아 정치 불확실성이 부각되자 최근 확대되던 장단기금리차가 축소되며 금융주의 하락을 야기. 이탈리아 콘테 총리가 이날 사임한다고 발표. 이로써 사실상 극우 정당인 동맹과 오성운동간 연정은 해체 되었으며, 시장에서는 10 월에 조기 총선 할 것으로 전망. 그동안 고속철도 등 인프라 투자로 인한 갈등이 격화되어 있었음. 지난해 하반기 금융시장에 영향을 줬던 정부지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결국 연정 해체로 이어졌음. 이는 향후 유럽 정치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음. 오늘은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미 국채금리 하락을 촉발.

미 증시 또 하나의 하락 요인은 대형 기술주에 대한 독점 금지 조사가 다음달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 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이번 조사는 과거와 달리 한층 더 정밀하게 실시할 것으로 알려짐. 특히 기술 플랫폼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독점적인 힘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둘 듯. 다만 관련 이슈는 6 월부터 불거져 왔기에 영향은 제한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등락률(%)	Close	D-1	지수	등락률(%)	Close	D-1
KOSPI		1,960.25	+1.05	홍콩항셱		26,231.54	-0.23
KOSDAQ		607.01	+2.08	영국		7,125.00	-0.90
DOW		25,962.44	-0.66	독일		11,651.18	-0.55
NASDAQ		7,948.56	-0.68	프랑스		5,344.64	-0.50
S&P 500		2,900.51	-0.79	스페인		8,618.30	-1.32
상하이종합		2,880.00	-0.11	그리스		829.74	+0.17
일본		20,677.22	+0.55	이탈리아		20,485.43	-1.1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며,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대형 기술주 부진

홈디포(+4.40%)는 양호한 실적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관세 영향과 목재가격 하락을 반영해 연간 판매 규모를 하향 조정 했으나, 예상보다 좋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상승 했다. 로이어(+2.97%)도 동반 상승 했다. 중국 검색업체 바이두(+4.32%)은 양호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 했다. 백화점 업체 콜스(-6.89%)는 매출과 순이익 감소 여파로 하락 했다. 특히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 매물 출회를 피하지 못했다. 메이시스(-4.77%)도 동반 하락 했다. TJX(-0.08%)는 실적 발표 이후 시간 외로 1% 하락 중이다.

알파벳(-1.41%), 페이스북(-1.27%), 아마존(-0.81%), MS(-0.83%) 등은 대형 기술주의 독점 금지 조사가 더 정밀하게 실시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하락 했다. 다만, 애플(+0.01%)은 11월에 월 9.99달러 비용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 이후 상승 했다. 이 여파로 넷플릭스(-3.36%)의 하락은 이어졌다. JP모건(-1.27%), BOA(-2.02%), 웰스파고(-1.26%), 씨티그룹(-1.38%)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하락 여파로 부진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81%	대형 가치주 ETF(IVE)	-0.87%
에너지섹터 ETF(OIH)	-1.61%	중형 가치주 ETF(IWS)	-0.91%
소매업체 ETF(XRT)	-0.95%	소형 가치주 ETF(IWN)	-0.82%
금융섹터 ETF(XLF)	-1.34%	대형 성장주 ETF(VUG)	-0.49%
기술섹터 ETF(XLK)	-0.50%	중형 성장주 ETF(IWP)	-0.39%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12%	소형 성장주 ETF(IWO)	-0.54%
인터넷업체 ETF(FDN)	-0.50%	배당주 ETF(DVY)	-0.90%
리츠업체 ETF(XLRE)	-0.74%	신흥국 고배당 ETF(DEM)	+0.27%
주택건설업체 ETF(XHB)	+0.46%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20%
바이오섹터 ETF(IBB)	-1.02%	미국 국채 ETF(IEF)	+0.44%
헬스케어 ETF(XLV)	-0.85%	하이일드 ETF(JNK)	+0.05%
곡물 ETF(DBA)	+0.07%	물가연동채 ETF(TIP)	+0.13%
반도체 ETF(SMH)	-0.57%	Long/short ETF(BTAL)	+0.1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23.89	-0.96%	-2.36%	-9.29%
소재	352.74	-1.22%	-2.01%	-5.41%
산업재	626.10	-0.70%	-1.09%	-5.28%
경기소비재	926.00	-0.08%	-1.01%	-5.19%
필수소비재	616.85	-1.21%	+0.74%	-0.16%
헬스케어	1,047.12	-0.86%	-1.21%	-1.76%
금융	438.32	-1.40%	-1.88%	-6.73%
IT	1,384.62	-0.53%	-0.47%	-3.87%
커뮤니케이션	164.99	-0.99%	-1.07%	-0.77%
유틸리티	311.51	-0.18%	+1.18%	+2.55%
부동산	239.05	-0.81%	+0.45%	+3.9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반등 지속 기대

MSCI 한국 지수 ETF 는 1.25% MSCI 신흥 지수 ETF 는 0.20%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2,182 계약 순매도 한 가운데 0.60pt 하락한 257.4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06.5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 증시는 금융주와 기술주가 하락을 주도하며 부진했다. 먼저 대형 기술주 하락 요인은 지난 6 월 하원 사법 위원회가 조사를 발표했었던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그러나 이탈리아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미 국채금리 하락은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연말 글로벌 주식시장 변동 요인 중 하나였던 이탈리아 정치 불확실성이 재차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6 월부터 관련 이슈가 이미 부각되어 왔었던 점을 감안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협상과 관련 "not ready" 즉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 했다. 그러나 중국과의 협상이 "우리나라에 좋은지, 단기적으로는 나쁜지는 상관없다" 라고 언급하며 "기꺼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도 주장했다. 이를 감안 트럼프는 어떤 형태로든 무역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다음주 고위급 전화 협상 및 9 월 초 워싱턴에서의 협상은 과거와 달리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트럼프가 "something will happen" 즉 조만감 무슨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하락 출발이 예상되나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속에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한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미 국채금리 하락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 및 글로벌 각국의 경기 부양정책에 기대 상승 했다. 한편, 미국이 그리스에 대해 이란의 유조선을 풀어준 것과 관련 테러조직에 대한 지원이라며 크게 반발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탈리아 발 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 되었으며, 대체로 관망세가 짙은 하루였다.

달러화는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한편, 이탈리아 정치불확실성이 부각되었으나 유로화는 그동안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EU 의회 의장에게 편지를 써서 브렉시트 관련 온건한 언급한 이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이탈리아 정치 불확실성이 불거지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며 하락 했다. 더불어 트럼프를 비롯해 백악관 대변인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세금 감면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임박한 것은 아니며 시장 기대를 약화시킨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FOMC 의사록 공개 및 잭슨홀 컨퍼런스를 기다리며 일부 관망세가 유입되며 하락은 제한 되었다.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유럽 정치 불확실성 여파로 하락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3.33%, 철근도 1.45%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6.13	-0.02	-1.70	Dollar Index	98.160	-0.19	+0.36
브렌트유	60.03	+0.49	-2.07	EUR/USD	1.11	+0.20	-0.64
금	1,515.70	+0.27	+0.11	USD/JPY	106.23	-0.38	-0.48
은	17.148	+1.23	+0.96	GBP/USD	1.2170	+0.36	+0.91
알루미늄	1,782.00	-0.67	-0.17	USD/CHF	0.978	-0.38	+0.14
전기동	5,711.00	-1.09	-2.02	AUD/USD	0.6778	+0.21	-0.31
아연	2,226.00	-1.59	-4.01	USD/CAD	1.3319	-0.04	+0.73
옥수수	368.75	-1.54	-2.06	USD/BRL	4.0556	-0.47	+2.22
밀	466.50	-1.27	-1.94	USD/CNH	7.0709	-0.02	+0.83
대두	868.25	+0.20	-2.33	USD/KRW	1208.30	-0.22	-0.65
커피	95.25	+0.47	-4.46	USD/KRW NDF 1M	1206.50	-0.41	+0.04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557	-4.91	-14.63	스페인	0.092	-3.70	-11.40
한국	1.200	+1.70	-8.20	포르투갈	0.118	-3.60	-11.10
일본	-0.233	-1.00	0.00	그리스	1.982	-3.40	-12.70
독일	-0.690	-4.20	-8.10	이탈리아	1.369	-6.50	-24.70